

# 1장.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과정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우선 서로 말이 통하도록 편하게 수업 하나를 같이 엿보도록 하자. 자신의 이야기처럼 생각될 수도 있고 아니기도 할 것이다. 여기 이 학생보다 여러분은 어떤 점에서 나은지, 어떤 점에서 못한지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자.

2008학년도 6월 대수능모의고사에 출제된 운동주의 「길」이다.

[ 학생 ]

[ 선생님 ]

**잃어 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이 작품의 두 번째 행까지 읽고  
무엇을 알 수 있는지 말해봐

잃어버렸어다네요.

그것 뿐이야?

?....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모른다잖아

잃어 버렸으니까 그런 거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널 가르치는 거잖아요.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모른다는 건

그렇게 써있는 거 알아요.  
근데 그게 뭐 그리 중요해요?

- ① 잃어버렸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 ② 뭘 잃어버렸는지 모른다+③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모른다, 이거야!

잃어버린 것에도 종류가 있어

뭐가 다르냐고요?  
엄마한테 혼나는 정도^^?

- ① 핸드폰을 잃어버렸다 & 어디에 두고 왔는지 안다
  - ② 핸드폰을 잃어버렸다 &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모른다
  - ③ 뭔가를 잃어버린 느낌이다 &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모른다
- 자, 어떠니? 서로 어떻게 다르지?

히히...  
찾을 가능성? 아님  
잃어 버린 사람의 막막함?

--

그야 ③이죠. 완전 절망이에요

그래, 막막한 정도가 다르지.  
그럼 이 시는 몇 번이지?

저야 레알 착하니까 **불쌍하고  
도와주고 싶죠!**

좋았어. 그럼 이 사람을 보는 네 마음은?

다 지 못한 탓이지요...

아우, 뭘 또 잃어버린거야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겠네

과연 네가 착해서 그럴까?  
만약 이렇게 말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네요!

다음부터는  
신중하게 읽어야 겠네요!!!  
(잘나셨습니다)

오...(좀 잘난 듯)

쓰여진 대로 보면 말이 안되  
잖아요? '나의' 두 손이 주머니  
를 더듬으면서 '내'가 길에 나  
아가는 건데 마치 손이 길에  
나가는 것 같이 썼어요

?....

내가 주머니를 뒤지는 건데  
두 손이 더듬는다고 했고, 내  
가 길에 나가는 건데 그 더듬  
던 손이 길로 나간다고 했어  
요. 그러니까....

!....

그런데 뭔가를 찾는 상황을 '더듬는다'고 표현하면 그것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안잖니? 상황은 '무얼 어디다 잃어버렸는지 모르는' 암담함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야.

그렇게까지 봐야 해요?

그래 말투만 바뀌도 반응이 달라지지? **불쌍하고 도와주고 싶은 건** 그  
런 생각과 느낌이 들도록 상황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야. 우리는,  
i. 어떤 사람이 뭔가를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도 모르는 상황  
ii. 그 상황에서 겪고 있는 당사자의 느낌  
iii. 당사자가 겪는 고통에 대한 우리의 느낌, 이런 것들을 이해한 거야

그런데 만약 '무얼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모른다'는 점을 생각하지 못  
했다면 어땠을까? ①을 제대로 몰라서 ②와 ③도 몰랐겠지? 너처럼

쉽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쓰여져 있는 대로 읽는 것**이야. 그런  
다음 쓰여져 있는 것을 통해서 **화자가 말하고 있는 상황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상황에 대해 **정서를 파악하면서 주제를 알게** 되는 거지.

자, 그럼 다음 두 행을 볼까?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브라보~. 해석을 해버렸네

문법에 어긋나서 그대로 읽을 수 없었지만, 어떻게 어긋났는지를 정확  
히 봤기 때문에 제대로 쓰려고 했다면 어떻게 썼어야 하는지도 알게  
된 거야. 문법에 어긋나게 써서 어떤 효과를 얻었을 지 생각해 볼래?

그러면 주머니를 더듬던 손이 길도 더듬거나 길에 나가서 뭔가 더듬겠지? 손이 주머니를 더듬  
는 건 뭔가를 찾으려는 것이었고, 길에서도 더듬으면서 뭔가를 찾으려 하는 것이지. 그런데  
'더듬다'는 말을 언제 사용하는지 생각해 봐. 친구의 손을 더듬었다, 기억을 더듬었다...촉감으로  
느끼려, 마음을 뒤져서 뭔가를 찾으려 하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어.

더 공부하면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아도 써 있는 것에서 그런 것까지 자동적으로 느낄 수 있게 된단다. 실전에선 굵직한 것만 보면 되겠지만 그럴 능력을 갖추려면 연습 할 때 하나하나 다 해석하도록 노력해야 해.  
놀라운 걸 하나 보여줄까?

안 물어봐도 말할 기세잖아요.

아까 다 가르쳐줬잖아요.  
써 있는 대로 보라고  
그럼,,,돌이 계속 있는데, 그  
돌이 담이고 길가에 이어져  
있네요

오! 오! 오! 보여요. 뭘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르는 암담한  
사람이 길에 나섰을 때 묵직  
한 돌 담벼락이 이어진 것을  
보니 마치 평생토록 찾아 헤  
맬것만 같아요. 게다가 돌담이  
라서 삭막하기까지 하네요.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사실 놀라운 일은 너에게서 일어날  
꺼다.  
2연이 무슨 뜻일까?

그래, 보기는 잘 봤어. 그러면 이번엔 아까 1연의  
i, ii, iii을 떠올려 봐. 그리고 그 시각으로, 즉 그  
상황에 처한 사람이 2연에서 묘사한 장면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오....내가 다 놀랐다.  
그래, 1연에서 본 상황과 느낌이 2연에서 반복되고  
있어. 하지만 네 말처럼 단순히 반복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구체화되고, 심화되고 있지

이제 지금까지 **윤동주**, 「**길**」로부터 어떤 '원리'를  
배웠는지 말해봐.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떻게 시  
를 감상해야 하는 거지?

**무엇이 쓰여져 있는지를 잘 보니까**<sup>1</sup> 시인이 말하고자 한 것을 전부 알 수가 있었어요.  
화자는 무엇인가를 잃어버렸고 그것을 찾아 나섰는데 그것에 대해 막연함, 두려움, 서글픔  
등을 갖고 있고, 저는 그런 화자에 대해 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화자의 **상황**<sup>2</sup>  
을 서두에서 파악하면 그것을 토대로 시 전체를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니 나머지 부분  
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문에서 좀 더 자세하게 상황을 제시하고 그에 따  
라서 **의미와 정서**<sup>3</sup>가 명확해질 테니 그렇게 되면 시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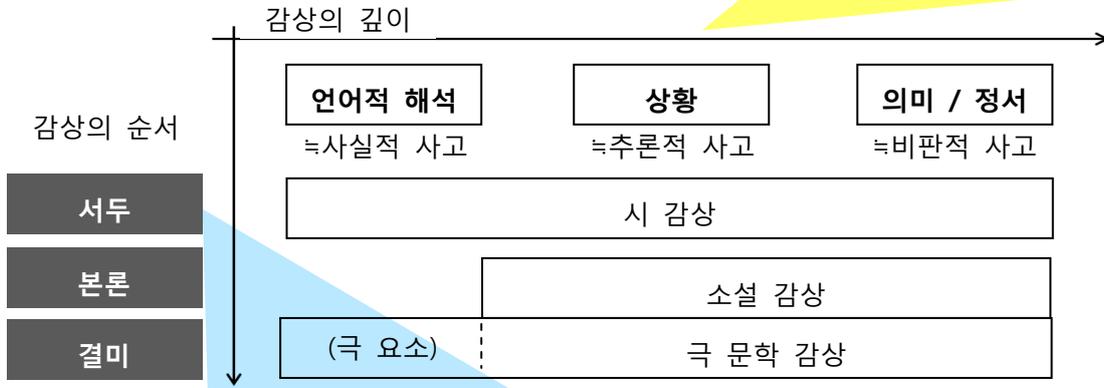
바보  
아니구나  
....

그리고 **첫 연에서 파악한 이해를 바탕으로** 2연을 바라보니까 처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관  
점에서 해석을 해내었어요. 작품의 부분은 따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을 지어서**  
**해석**<sup>4</sup>하면 쉽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1. 언어적 해석, 2. 시적 상황(일반적으로 말하는 것과 달리 작품 속 상황 & 작품 밖의 상황을 말한다), 3. 의미/정서  
1, 2, 3 은 1→2→3 이런 방향으로 이해가 심화됨을 의미한다.  
4. 서두(초반부)가 작품 전반을 이해하는 틀을 제공한다.

이제 답답한 설명을 시작해 보자. 문학 작품을 이해하는 하나의 과정이 무엇인지 대략적으로 살펴보자.

이 화살표는 문학감상이 언어를 해석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이를 기반으로 상황을 구성하고 그것으로부터 의미를 이해하거나 정서를 공감하는 단계에 이른다는 것을 보여준다. 언어적 해석이 부실하면 상황을 제대로 구성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작품의 주제를 이해하거나 정서를 충분히 느낄 수 없게 된다.



문학도 비문학과 같이 서두에서 지문 전체에 대한 감상의 열쇠를 개괄적으로 제시한다. 본론에서는 서두의 상황을 반복하면서 보다 분명하게 정교화한다. 결미는 주제로 마무리 짓는다. 소설의 경우 지문 초반부를 학생이 스스로 서두화하여 읽기가 필요하다. 작품에서 이 같은 유기적인 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

**시의 감상에 성공하려면** 시어의 언어적 해석과 시적상황의 구성에 성공해야 한다. 특히 고전시가에 어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한자 합성어가 낯설거나 부담이 되어 언어적 해석에 성공하지 못해 상황을 제대로 구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소설 감상에 성공하려면** 인물간의 관계가 구성하는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설은 일상적 언어 표현이 주를 이루고 있어 언어적 해석이 그다지 어렵지 않다. 하지만 극문학 경우에는 지문, 음향, 조명, 카메라, 무대 등 등의 극 요소들을 언어표현처럼 해석해 내야 한다.

결론적으로 **문학 감상 능력을 완성하려면,**

1. 작품의 <언어적 해석>, <상황 구성>, <의미/정서>에서 각 단계의 목표는 다음 단계를 완성하는 것이다. **이전의 과정을 완벽하게 실행하여 이후의 과정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때 가능하다.**
2. 서두-본론-결미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서두에서 제시한 상황과 의미/정서를 참고하여 본론을 감상한다. 본론에서 상황은 구체화되고, 정서는 일관성을 유지한다.**

문학 작품의 언어처리 세 단계와 사고능력(교육과정평가원 수능출제 매뉴얼)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언어적 해석 : 사전적 의미, 문법, 수사 표현에 유의하여 표면적 의미를 파악한다.

사실적 사고 : 언어로 표현된 말이나 글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이해하거나 사실에 맞게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능력

상황 구성 : 언어가 전달하는 내용을 통합·추론하여 마음속에 작품에 관한 표상을 구성한다.

추론적 사고 : 언어표현의 내적 연관성을 종합하여 논리적으로 추리하는 능력, 내용간의 관련성을 긴밀하게 관련지어 전개·발전시키는 능력

의미 / 정서 : 작품의 의미를 엄밀하게 해석하고, 정서의 종류와 정도를 충분히 공감한다.

비판적 사고 : 문학 작품의 경우 감상의 능력